

1 과 현실점검. 2026 년 4 월 4 일

일. 하나님의 기별 (계 3:14-22):

❖ 평가 (14-17 절)

-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들은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세계 교회의 현실을 보여줍니다(계 2-3 장).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을 말하며, 예수님은 자신이 “아멘 (진리)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(계 3:14).
- 우리가 스스로를 “나는 부자라,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”고 평가하지만 이것은 내가 믿는 나의 진리입니다(계 3:17a).
-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진리, 즉 우리의 실상은 “비참하고, 불쌍하고, 가난하고, 눈멀고, 벌거벗”었다고 말씀하십니다 (계 3:17b).
- 자신을 점검할 시간이 왔습니다.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,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습니까?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얼마나 성장했으며,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?

❖ 해결책 (18 절)

- 현 상황에 안주하는 마음은 무관심과 열성이 식은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지근함을 탈출할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:
 - (1) 연단한 금을 사라. 반쪽짜리 진리나 수박 겉핥기식의 성경연구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. 인간이 만든 싸구려 모조품인 교리들을 과감히 버리고 스스로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, 평소에 잘못 알고 있던 모든 찌꺼기 지식들을 제거해야 합니다.
 - (2) 흰 옷을 사라.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 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. 내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것은, 벌거벗은 채 그분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.
 - (3) 안약을 사라.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.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나의 진짜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(요 16:8).

❖ 결과 (19-20 절)

-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 내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, 예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내가 변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한 변화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.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.
-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. “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...” “회개하라” (계 3:19)고 말씀하십니다.
-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. 예수님은 대화를 더 좋아하십니다. 우리와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... “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” (계 3 장 20 절).
-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. 그분은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시려 내 삶을 방해하지 않으십니다. 내 자신만이 내 마음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.

❖ 보상 (21-22 절)

- 예수님이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. 예수님은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 지 알고 계십니다. 또 무관심과 미지근함을 극복하고,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모시려고 매일 싸우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“내가 이겨낸 것처럼, 너희 또한 이겨낼 수 있다”고 말씀하십니다(계 3:21).
-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.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손을 내미셨고 앞장서셨습니다.
 - (1)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결심하셨고(창 2:7)
 - (2)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먼저 찾아 나서셨고 (창. 3:8-9)
 - (3) 죄의 희생 재물이 되셔서 구원하셨고(요 3:16)
 - (4) 우리에게 보상, 즉 하나님과 함께 앉고, 영원히 친밀하게 살도록 하심(계 3: 21)
- 우리가 말도 안되는 이런 특혜를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“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라” (렘 31:3).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.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?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,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분을 사랑 하시겠습니까?

이. 현실 점검 (요 15:1-11):

❖ 포도나무와 가지

-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'포도나무' 그리고 제자들을 '그 가지'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
-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얼마간 살 수 있지만, 결국에는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.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잃지 않으려면 "내 안에 거하라" (요 15: 4)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열한절들에서 '거하라'는 동사를 무려 열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. '거하'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.
-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상태를 근절하는 해독제입니다.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기도 합니다(요 5:11).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?
-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동,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(요 15:10).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(요 4:19).

❖ 나무의 수(진)액

- 겨울철에는 가지들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만,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
- 봄이 오면 비로소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게 되고 새순들이 돌아옵니다. 요한이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는 새순들 뿐 아니라 잘려 나갔다가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
- 우리가 새순이든 잘려 나갔던 가지가 되었던,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. 우리는 포도나무의 수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 수액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?
- 예수님은 요한복음 14-17 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알려주셨습니다.
 - (1) 위로하시는 분 (요 14:16-17)
 - (2)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(요 15:26)
 - (3) 죄를 깨우쳐 주시고 (요 16:8)
 - (4) 모든 진리로 인도하심 (요 16:13)